

<서평>

***Translating Scripture for Sound and Performance:
New Directions in Biblical Studies***
(James A. Maxey and Ernst R. Wendland, eds.,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6, Eugene: Cascade Books, 2012)

유지운*

1. 들어가는 말

성서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등의 고전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마다 그 내용을 자신의 시대에 맞는 표현으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욱 정확하고 명확하고 미적 감각이 포함되도록 성서를 번역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 기독교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성서를 ‘경험’하는 깊이와 빈도가 점점 얕아지고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그 주요 원인으로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 습성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것을 지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서의 내용과 가치가 현대인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의미 있게 전달되도록 하는 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서 번역의 주제를 신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서평에서는 이 책에 관한 기본 정보, 책 안에 수록된 8편의 논문에 대한 요약, 그리고 이 책이 주는 성서 번역과 관련한 통찰력 있는 제안들과 이에 따른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 고척교회 부목사 /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jwyo0115@gmail.com.

2. 책에 관한 기본 정보

제임스 맥시(James A. Maxey)와 에른스트 벤트랜드(Ernst R. Wendland)가 편집한 이 책은 ‘성서 퍼포먼스 비평’(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시리즈를 구성하고 있는 책들 중 하나로 특별히 ‘성서 번역’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목차를 비롯한 서론적 성격의 내용들(i-xii) 외에 총 216쪽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각기 저자가 다른 논문 8편이 수록되어 있다. *Mark As Story*의 저자인 성서학자 데이비드 로즈(David M. Rhoads)가 편집을 주도하고 있는 ‘성서 퍼포먼스 비평 시리즈’는 2009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15권이 출판되었고, 이 책은 그 중 여섯 번째 책으로 2012년에 출판되었다. 편집저자인 맥시는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의 ‘나이다연구소’(Nida Institute)에 속한 번역 훈련 및 수업 개발팀의 선임 관리자이며, 저널 *Translation*의 편집장으로 있다. 맥시는 그의 박사논문 지도 교수였던 데이비드 로즈를 통해 ‘성서 퍼포먼스 비평’을 접하게 되었고,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서의 성서 번역 경험과 아프리카 구연 문화 체험을 접목시키며 현대 성서 번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신선하게 제시하고 있는 전문 번역가이다. 또 다른 편집저자인 에른스트 벤트랜드는 잠비아에 위치한 루사카 루터란 신학교(Lusaka Lutheran Seminary)에서 강의하고 있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은퇴 번역 자문 위원이다. 은퇴 후에도 스텔렌보스(Stellenbosch)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섬기고 있다. 벤트랜드 역시 아프리카 지역의 구연 문화를 배경으로 오랫동안 성서 해석, 번역, 성서 전승의 전달매체 및 과정 등에 대해 연구한 성서학자이자 전문 번역가이다. 이 책의 책임 편집자인 두 사람은 각각 첫 논문과 일곱 번째 논문의 저자이기도 하다.

8편의 논문들은 모두 ‘성서 퍼포먼스 비평’이 가정하고 있는 주후 1세기의 뚜렷한 ‘구연(口演) 문화’(oral performance culture)의 전제 하에 성서 번역의 주제를 각기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¹⁾ 종합적으로 볼 때

1) ‘구연’(口演)으로 표현되는 ‘퍼포먼스’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성서 본문이 선포되고 이야기로 전달되었던 것을 ‘퍼포먼스’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대의 ‘구연’은 상당히 표현력이 풍부한 성격을 띠었고, 청중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역동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퍼포먼스’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이 책의 3쪽). 고대 구연 문화의 다양한 성격과 구연의 다양한 시나리오와 관련하여서는 휘트니 샤이너(Whitney Shiner)의 연구서를 참고하면 좋다. Whitney T. Shiner, *Proclaiming the Gospel: First-Century Performance of Mark* (Harrisburg,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3).

8편의 논문 모두 ‘성서 퍼포먼스 비평’과 그에 따른 성서 번역의 주제에 관해 직간접적인 연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편집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 이 논문들이 신선하게 접근하고 있는 성서 번역의 이슈는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성서학의 경향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이전 세기를 지배하다시피 했던 역사비평학(historical criticism)에 기초한 성서학에서는 본문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본래적 의미를 밝혀내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 결과가 성서 번역에 잘 반영되도록 하는 데에 주로 관심했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이 만연하게 된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성서학에도 다양한 관점들과 방법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저자나 본문으로부터 하나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 외에도 독자나 청중의 반응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성서 본문이 그들에게 끼치게 되는 영향력의 다양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성서 퍼포먼스 비평’은 기존의 성서 번역 관행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결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시리즈 편집자와 이 책의 편집자들의 공통적 견해라고 생각된다. 분명한 것은 번역 역시 하나의 해석이며, 따라서 성서학의 변화와 발전이 성서 번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3. 여덟 편의 논문에 대한 요약과 정리

제임스 맥시의 글은 ‘성서 퍼포먼스 비평’의 발전과 성서 번역의 관계를 논한다. 전자는 고대 이스라엘과 초기 교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뚜렷한 구연(口演) 문화로 다시 상상해 볼 것을 제안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구연’은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되고 있다: 1. “동화, 야담, 만담 따위를 여러 사람 앞에서 말로써 재미있게 이야기함”; 2. “문서에 의하지 않고 입으로 사연을 말함”.²⁾ 맥시의 주장은 고대의 구연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구성해 보고 그것들을 성서 전승을 새롭게 해석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할 당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서 번역에서 음성 분석을 통해 열리는 해석의 측면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뚜렷한 구연 문화 배경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 기존의 성서 번역이 극적인 전환 혹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음성 분석의 해석적 측면과 함께

2) 국립국어원, “구연”,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8. 1. 24.).

그것을 뛰어넘어 구연의 특성들 — 움직임의 역학, 몸짓, 공간학 등 — 의 해석적 측면이 성서 번역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이다. 인쇄 문화에서 익숙했던 성서 번역의 개념은 성서 본문의 다양한 영향력을 담기에는 상당히 좁은 의미의 번역 개념임을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인쇄 문화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구연의 특성들이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성서 번역’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맥시는 ‘성서 퍼포먼스 비평’이 단순히 성서학에 추가적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차원을 넘어 성서학에 있어서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점을 상기시킨다(7쪽). 번역 전문 학자로서 맥시는 자신의 ‘성서 퍼포먼스 비평’에 대한 접근은 오늘날 성서 본문들에 대한 번역이 어떠한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8쪽). 즉, ‘성서 퍼포먼스 비평’이 현대와 고대의 구연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점을 갖도록 현대의 구연들을 산출해 내는 데에 특별히 유용함을 기술한다. 맥시에 따르면, 성서 퍼포먼스 비평은 기록된 것이 중심이고 가장 권위적이라는 오랜 주장에 대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8쪽). 그것은 또한 성서 본문의 ‘유동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맥시는 구약성서학자 데이비드 카(David Carr)의 연구서를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이 외에도 맥시는 ‘성서 퍼포먼스 비평’이 ‘기억’(memory)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고, 특별히 ‘사회적 기억’ 혹은 ‘집합적 기억’과 관련이 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이슈에 좋은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한다(9쪽). 마지막으로 그는 ‘성서 퍼포먼스 비평’이 갖는 본질적 요소인 ‘다방면에 걸친 특성’이 성서 번역에 공헌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성서 퍼포먼스 비평’은 단순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본문 번역에 관심하기보다 성서 본문의 ‘구연’ 그 자체가 이미 번역이라는 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14쪽). 즉 ‘번역’은 소리, 침묵, 몸짓, 그리고 청중과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성서 본문을 구연하는 중에 발생하기도 한다고 본다. 번역 전문가로서 맥시는 다음과 같이 흥미진진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성서 번역의 기초 중의 기초는 정확성, 미적 요소, 그리고 명확성인데, 이러한 것들이 구연 컨텍스트를 상정할 때에는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14쪽)

두 번째 글은 ‘성서 퍼포먼스 비평’ 시리즈의 총 편집자인 데이비드 로즈의 “구연을 위한 번역의 예술”이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로즈는 번역이 단순

3) David M. Carr, *Writing on the Tablet of the Heart: Origins of Scripture and Literatur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한 기계적 작업이 아니라 기본 인식에 더하여 번역 과정의 최종 결과물이 ‘구연’으로 산출된다고 하는 ‘번역’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될 때 번역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와 차원의 예술적 가치를 담지하게 된다. 성서 번역의 경우 성서 본문이 갖는 구연 문화의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를 최대한 반영한 번역문을 산출해 낸 다음 그것을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조율하여 최종 번역문을 만드는 것이 로즈가 설명하는 소위 ‘소통 모델’(communication model)로 불리는 번역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로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참여 모델’(engagement model)이라는 새로운 번역의 장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24-25쪽). 즉, ‘구연’을 위한 번역 작업의 모든 과정과 그것의 최종 산물인 ‘구연’ 자체가 일종의 ‘번역’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서 번역에 있어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환기시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참여 모델’은 청중을 향한 번역이 갖는 잠재적인 수사적 충격을 심도 있게 고려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언어 표현을 보다 자유롭게 구사하게 되고, 지역 문화와 세계관 등에 대한 적절한 정보도 번역에 포함되도록 한다. 성서 번역의 최종 산물이 비디오 드라마나 그림을 담은 소설이나 혹은 만화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일종의 현대적 ‘참여 모델’의 예들로 볼 수 있다.⁴⁾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 번역 산출물들에는 여전히 어떤 한 종류의 인쇄된 번역문이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⁵⁾

로즈에 따르면, 기존의 인쇄된 번역문 산출을 위한 번역 작업을 넘어서려는 새로운 움직임들 중에서도 ‘구연’을 위한 성서 번역으로의 전환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대표한다(25쪽). 로즈는 신약성서를 ‘구연 문학’(performance literature)으로 인식한다. 이런 점에서 ‘성서 퍼포먼스 비평’은 성서 본문이 갖는 구연적인 본질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신약성서에 포함된 복음서와 편지 등이 거의 사실상 표현력이 풍부한 공개적인 읽기 혹은 구연의 형태로 집합적 청중들에게 경험되었다고

4) ‘성서 퍼포먼스 비평’ 시리즈 제1권에 수록된 신약성서학자 로버트 파울러(Robert M. Fowler)의 새로운 시대의 ‘전자미디어 성서’에 관한 글을 참조할 수 있다. Robert M. Fowler, “Why Everything We Know About the Bible Is Wrong: Lessons from the Media History of the Bible”, Holly E. Hearon and Philip Ruge-Jones, eds., *The Bible in Ancient and Modern Media: Story and Performance*,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1 (Eugene, OR: Cascade Books, 2009), 3-18, 특히 14-18.

5) 필립 노스(Philip A. Noss)는 이 책 안의 자신의 글에서 CCC에서 제작한 ‘예수 영화’가 누가 복음에 대한 한 번역문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의 예를 들면서, 기존의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한 새로운 번역 시도들과 로즈와 맥시가 주장하는 ‘구연’을 위한 번역의 차이점이 문서로 된 번역문에 중점을 두느냐와 번역의 산물로서 ‘구연’ 자체에 중점을 두느냐에 있다고 정확하게 지적한다(116쪽).

보고 있다. 따라서 신약성서의 내용이 이러한 구연의 형태로 공동체에게 경험될 때에 역동적이고 감동적이고 참여적인 사건이 청중들 사이에 공유되었을 것을 상정한다. 신약성서 사본들에 나타나는 대문자들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마침표나 악센트 표시가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신약성서가 ‘구연 문학’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강력히 시사해 준다고 보고 있다. 마치 음악의 음표들이 실제 음악 연주를 항상 내포하고 있듯이, 사본들에 나타난 띄어쓰기 없는 대문자들의 연속은 일종의 음표와 같은 기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즉, 구연자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역할을 했고, 따라서 그 안에 ‘구연’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27쪽). 성서 본문들에는 구연의 잔여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문(地文)’(stage direction)이다. 성서 본문의 각 문장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 동작, 표정, 어조 등을 제시하는 희곡의 지문 역할을 하는 흔적들이 가득하다는 것이다(29-30쪽). 로즈에 따르면 동작이나 표정이나 어조 등은 특히 청중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서 본문의 의미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로즈에 의하면 구연이라고 하는 일종의 ‘번역’은 청중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의 사고와 삶에 변화와 변형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특정한 종류의 정체성을 갖도록 해 줄 수 있게 된다(30쪽).

끝으로 로즈는 성서 번역을 향한 두 종류의 새로운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는 에른스트 벤트랜드의 연구서이고, 다른 하나는 제임스 맥시의 연구서이다.⁶⁾ 전자는 다양한 종류의 ‘지문’에 대한 분석의 의미를 번역에 적용하는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고(34-36쪽), 후자는 구연 자체가 번역이라는 로즈의 입장과 거의 일치하는 접근법을 소개하고 있다(36-38쪽). 번역물의 한 형태로서의 ‘구연’을 이해하게 될 때, 어떠한 두 개의 구연도 결코 완벽히 일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번역의 다양성을 상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맥시의 앞 논문에서 제기되었던 ‘번역의 윤리성’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다.⁷⁾ 로즈는 구연을 위한 번역 작업이나 또는 구연자가 경험하게 되는 구연 중에 일어나게 되는 ‘번역 작업’이야말로 성서 본문을

6) Ernst R. Wendland, *Finding and Translating the Oral-Aural Elements in Written Language: The Case of the New Testament Epistles* (Lewiston, NY: Edwin Mellen Press, 2008); James A. Maxey, *From Orality to Orality: A New Paradigm for Contextual Translation of the Bible,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2* (Eugene, OR: Cascade Books, 2009).

7) 성서 퍼포먼스 비평과 관련한 ‘구연’ 혹은 ‘번역’의 해석학적 윤리성의 문제에 관하여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이 책의 6쪽). 내러티브 비평과 관련한 해석학적 윤리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글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참조, David M. Rhoads, *Reading Mark: Engaging the Gospel*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4), 202-219.

이해하는 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책의 다른 논문 제공자들은 성서 본문의 구연 문화 배경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면서, 특정 성서 본문을 중심으로 성서 번역의 주제에 각각 접근하고 있다.

댄 내셀크비스트(Dan Nässelqvist)는 요한복음의 서문(prologue)을 다루면서 기존의 역사비평적 분석을 넘어서는 음성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마거릿 리(Margaret E. Lee)와 버나드 스콧(Bernard B. Scott)의 ‘신약성서에 대한 음성 지도’(sound mapping of the New Testament)라는 ‘방법론’을 취하면서 요한복음 서문을 대상으로 ‘구연을 위한 성서 번역’을 수행하고 있다.⁸⁾ 그는 고대 구연을 상정한 성서 본문 번역에서 음성 분석이 필히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획득된 음성 분석의 결과가 현대 구연을 위한 번역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라우런스 드 프리스(Lourens de Vries)는 성서를 비롯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문화적으로 중요한 전승으로 판명된 다른 본문들이 순전히 배타적으로 구전 배경(oral context)만을 갖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 비판적이다. 고대 문서들에 나타나는 구전적 요소들은 그 당시 소통 미디어의 정황을 고려할 때, 구전적 요소들과 문자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몇 가지 성서 번역물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조사한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성서 번역과 20세기 뉴기니아의 공동체를 위한 성서 번역, 그리고 부버와 로젠바이크에 의한 독일어 구약 성서 번역을 비교-조사하면서, 구전적 요소들과 문자적 요소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성서 번역에 있어서 고대 기록 문화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고대 구전 문화에 대한 배타적이고 순진한 접근을 경계한다.

필립 노스(Philip A. Noss)는 ‘표의음’(ideophone)⁹⁾과 ‘구연’ 그리고 성서 번역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어 논한다. 그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성서 번역의 방법이 언어학적 이론 중심에서 소통 이론 중심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전반적인 성서학의 질문도 역사비평에서 독자반응비평으로 옮겨감에 따라 성서 번역이 성서의 사용과 성서에의 참여를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본다(99-100쪽). 그바야(Gbaya) 민담들에 나타나는 ‘표의음’을 조사하면서 그

8) Margaret E. Lee and Bernard B. Scott, *Sound Mapping the New Testament* (Salem, OR: Polebridge Press, 2009).

9) 표의음(ideophone)은 공개적 읽기나 구연에서 단어나 어구의 음성적 반복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특정한 의미를 갖도록 해 주는 소리를 말한다.

것들의 사용 효과를 ‘구연’ 셋팅 속에서 평가하는 것의 적합성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성서 번역에 있어서 ‘표의음’의 다양한 기능을 번역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로즈가 제시했던 번역의 두 모델 중에서 ‘소통 모델’은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서 ‘참여 모델’과도 관련이 깊다. ‘구연’이 야말로 이 참여 모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스는 ‘구연’ 속에서 ‘표의음’의 다양한 효과를 평가해 볼 것을 제시하고 있다.

재닛 매튜(Jeanette Matthews)는 하박국 본문 안에 이미 단단하게 박혀있는 ‘구연적 특성’들을 재현시킴으로써 이것들에 대한 집중이 어떻게 본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하고자 한다(119쪽). 선지서인 하박국 본문 자체가 ‘구연’의 특성을 짙게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구연을 위한 성서 번역’의 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녀는 먼저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문자적 번역으로 시작하고, 다음으로 하박국 본문 안에서 구연과 관련된 주제들을 선택적으로 다룬다. 하박국 본문의 내용이 구연자에게 ‘체화’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어떠한 구연도 고정되지 않는 ‘과정’에 있는 번역임을 인지한다. 끝으로 하박국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말/어구’(hapax legomenon)에 주목하면서, 번역으로서의 구연이 그때그때 청중이나 상황에 따라 독특한 방식으로 재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써 하박국 안의 ‘하팍스 레고메논’ 사용을 제시한다(133쪽).

에른스트 벤트랜드는 신약성서 유다서에 대한 언어학적 담화분석을 제공하면서 유다서 안의 다양한 ‘반복’과 ‘표어’(catchword)의 기능, 그리고 교차대조 혹은 병행 기법의 사용 등에 주목한다. 유다서가 갖는 히브리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고전적인 그레코-로만 수사학적 비평 방법을 적용하는 것의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한다(143-147쪽). 벤트랜드의 담화 분석에 따르면 유다서에는 두 종류의 소통 목적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경건치 못한 적대자들에 대한 혹평과 경고이고, 동시에 다른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 교사들을 거부하고 거룩한 믿음에 진실하게 남아있으라는 권면이다. 특별히 교차대조 기법을 통해 보게 될 때 3절에 나타났던 편지의 ‘핵심 호소’가 20-21절에서 보다 정교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보인다. 벤트랜드는 유다서 본문의 ‘음성 전경’(soundscape)에 대한 분석이 전반적인 편지의 내용이나 수사적 효과 혹은 긴급함과 적절함을 보여주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질 칼릭(Jill Karlik)은 기니아-비소의 언어, ‘만자쿠’(Manjaku)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번역과 ‘구연’의 관계성을 논한다. 학문적 관심에서 멀리 떨

어져 있던 서아프리카 설교들에 나타나는 해석적 활동을 살펴보면, 성서의 내용을 해석자가 중재하게 되는 사례 연구를 보여준다. 칼릭은 인쇄된 성서 번역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었을 때, 사람들이 성서의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주요 방식은 ‘구전 해석자’를 통하거나 성서 본문에 대한 ‘구연’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연관성을 포착하면서 칼릭은 ‘성서 퍼포먼스 비평’에서 ‘구연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4. 성서 번역과 관련한 통찰력 있는 제안들과 향후 과제들

이 시점에서 이 책의 제목, *Translating Scripture for Sound and Performance: New Directions in Biblical Studies*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책 제목이 시사해 주는 것처럼 이 책에 수록된 8편의 논문들은 음성적 요소와 ‘구연’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성서 번역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 또한 부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성서 번역은 성서학의 발전과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발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성서 퍼포먼스 비평’이라는 성서학 안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방법론을 다각도로 소개하면서 실제적인 성서 번역의 사례들과 연결하고 있다.¹⁰⁾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성서 번역과 관련하여 신선한 제안들과 통찰을 이 책으로부터 얻게 되는데, 이러한 통찰력들과 그에 따른 향후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 책은 성서 번역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고정된 번역을 추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한다. 즉 번역의 다양성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취한다. 이것은 단순히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성서학 방법론에 있어서 역사비평의 독점적 위치로부터 독자/청중반응비평으로 무게중심이 분산되어 옮겨가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의 광범위한 포스트모던적 경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객관적’이고 ‘옳은’ 오직 하나의 번역을 중시하는 입장은 그것을 제외한 다른 많은 해석적 타당성과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해 성서 본문의 포괄적이고도 현실 적합성 높은 다양한 의미의 차원을 본의 아니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이 책은 성서 번역이 그 자체로 일종의 성서 해석이라는 관점을

10) ‘성서 퍼포먼스 비평’과 관련한 논문, 전자 미디어 자료, 참고문헌 자료 등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의 웹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다. <http://www.biblicalperformancecriticism.org> (2018. 1. 24.).

새삼 일깨워 준다. 즉, 성서 번역은 단순히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옮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성서 번역 자체가 이미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다만, 역사비평학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서 번역의 예술성과 독자/청중반응비평 등과 함께 새로이 등장하는 ‘성서 퍼포먼스 비평’을 수용하는 성서 번역의 예술성은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서 번역이 일종의 성서해석이라는 관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해석의 윤리성에 대한 고찰과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성서 퍼포먼스 비평’의 해석적 윤리성의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

셋째로 이 책은 ‘성서 퍼포먼스 비평’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고대 이스라엘과 초기 교회가 갖는 뚜렷한 구연 문화적 배경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성서 번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맥시가 지적하듯이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띠게 된다. 하나는 고대의 성서 본문 구연에 대한 적합성 높은 성서 번역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책에 포함된 재닛 매튜의 하박국 성서 번역 논문에서는 일단 ‘문자적’ 정확성을 높이는 성서 번역으로 시작했던 것을 이와 관련된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벤투랜드의 유다서 성서 번역 논문에서는 다양한 ‘지문’(stage directions)에 대한 ‘성서 퍼포먼스 비평’적 이해를 통해 고대 구연 문화 이해에 충실하게 성서 번역을 수행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번역 작업들이 고대의 성서 본문 구연에 대해 충실하려는 번역 노력의 산물이라면, 또 하나의 성서 번역 형태는 현대의 성서 본문 구연을 위한 성서 번역을 추구하는 것이다. 전자로부터 얻은 결실들이 현대적 구연 상황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하면서 현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이나 세계관에 적합한 표현들을 찾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것은 로즈가 제시했던 번역의 한 유형인 ‘소통 모델’과 기본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사한 맥락에서 고대 구연에 대한 음성 분석을 현대 구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의 이슈를 다룬, 이 책 안의 논문 공헌자인 댄 내셀 크비스트의 지적을 떠올리게 된다.

넷째로 이 책은 번역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번역 개념에서는 활자화된 번역문을 산출하는 것이 번역의 ‘목표’였다면, ‘성서 퍼포먼스 비평’과 관련한 새로운 번역 개념에서는 번역 과정을 거쳐 산출된 ‘구연’ 그 자체가 일종의 ‘번역문’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신선한 제안이다. 이렇게 볼 때, ‘구연’들 가운데 아무리 유사한 두 개의 구연도 완전히 동일한 구연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다양한 ‘구연’의 타당성, 즉

다양한 ‘번역’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오히려 널리 장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로즈가 제시한 두 가지 번역의 형태 중 ‘참여 모델’에 해당하는 번역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고대에서나 현대에서나 구연의 현장에서 청중의 참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구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서 본문에 대한 번역문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기존의 여타 ‘소통 모델’ 혹은 ‘참여 모델’과 달리 ‘구연을 위한 성서 번역’에서는 ‘구연’ 자체가 그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대에서나 현대에서 모두, 인쇄된 ‘번역문’은 ‘구연’의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로즈는 이것을 성서 번역에 있어서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르고, ‘성서 퍼포먼스 비평’이 성서학 전반에 가져오고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과의 연장선에서 다루고 있다.

다섯째로 구연으로 표현되는 ‘성서 번역’은 성서를 접하고 경험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고대의 구연이 각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성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책들의 독특한 성격들을 더욱 부각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을 지속적인 ‘구연’을 통해 들으며 경험했던 마가 공동체는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해 가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로즈와 맥시에 따르면 현대의 구연에 이와 같은 맥락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대의 신앙 공동체가 경험했던 정체성 형성을 현대의 신앙 공동체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번역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번역은 단순한 기계적 번역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현실 신앙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적/윤리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신선한 목적을 갖게 된다.

끝으로 이러한 성서 번역을 향한 새로운 통찰력들을 제공하는 이 책이 가져다주는 향후 과제들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성서학을 비롯한 신학 전반의 흐름과 발전이 성서 번역과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성서학자들과 전문 번역가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연’을 위한 성서 번역을 상정할 때에는 성서학자들과 전문 ‘스토리텔러(storyteller)들’의 대화와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 같다. 다른 하나는 성서 번역의 해석적 윤리성에 관한 것이다. ‘구연’ 자체가 일종의 ‘번역문’의 자리에 올 수 있다고 하는 파격적인 제안에는 신뢰할 만한 ‘구연’에 대한 해석적 윤리성의 이슈가 수반되어야 한다. 성서 본문이 갖는 기본적인 의미의 틀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현대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력을 갖는 표현들을 겸비한 좋은 ‘구연’을 새로운 의미의 ‘번역’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성서 퍼포먼스 비평’ 시리즈의 한 권인 이 책의 편집자들의 의도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성서 번역과 관련한 신선한 통찰력과 그에 따른 향후 과제들에 대한 인식 제공을 이 책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추가로 언급할 만한 유익한 점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의 각 논문들에 수록된 참고문헌 목록은 ‘성서 퍼포먼스 비평’, ‘구연 문화’, ‘성서 번역’ 등에 관한 주요 연구 서들을 수록하고 있어서 성서학자들과 전문 번역가들에게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참고문헌 목록을 책 후반부에 한꺼번에 주제 항목별로 묶어서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제공하였더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 책은 고대 이스라엘과 초기 기독교회의 배경으로 ‘구연 문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고대 ‘기록 문화’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구전 문화와 기록 문화를 이분화시켜온 학문적 경향들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반면에 아쉬운 점도 있다. 성서 안의 책들의 다양성과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어 보이지만, ‘성서 퍼포먼스 비평’과 ‘성서 번역’이라는 공통적 관심사를 제외하면 8편의 논문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약점’이 있다. 책 앞부분에 수록된 맥시와 로즈의 두 논문을 통해 ‘성서 퍼포먼스 비평’과 ‘성서 번역’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하면서 다른 논문 저자들이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사례 연구들을 취사선택하며 읽으면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5. 나가는 말

이 책은 성서 번역에 관심 있는 성서학자들과 전문 번역가들에게 새로운 통찰력과 과제를 함께 던져주는 책이다. 한편, 기존의 번역 개념으로부터 파격적인 전환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에게조차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성서의 지속적인 영향력 증진이라는 대의를 생각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오늘날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 성서 번역을 위한 노력과 헌신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잠재력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Keywords)

성서 번역, 성서 퍼포먼스 비평, 참여 모델, 구연, 정체성 형성.

Bible translation,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engagement model, performance, identity formation.

(투고 일자: 2018년 1월 30일, 심사 일자: 2018년 3월 12일, 게재 확정 일자: 2018년 3월 23일)

<참고문헌>(References)

- Carr, David M., *Writing on the Tablet of the Heart: Origins of Scripture and Literatur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Fowler, Robert M., “Why Everything We Know About the Bible Is Wrong?: Lessons from the Media History of the Bible”, Holly E. Hearon and Philip Ruge-Jones, eds., *The Bible in Ancient and Modern Media: Story and Performance*, Eugene, OR: Cascade Books, 2009, 3-18.
- Lee, Margaret E. and Scott, Bernard B., *Sound Mapping the New Testament*, Salem, OR: Polebridge Press, 2009.
- Maxey, James A., *From Orality to Orality: A New Paradigm for Contextual Translation of the Bible*,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2, Eugene, OR: Cascade Books, 2009.
- Rhoads, David M., *Reading Mark: Engaging the Gospel*,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4.
- Shiner, Whitney T., *Proclaiming the Gospel: First-Century Performance of Mark*, Harrisburg,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3.
- Wendland, Ernst R., *Finding and Translating the Oral-Aural Elements in Written Language: The Case of the New Testament Epistles*, Lewiston, NY: Edwin Mellen Press, 2008.

<Abstract>

**Book Review - *Translating Scripture for Sound and Performance:
New Directions in Biblical Studies***

(James A. Maxey and Ernst R. Wendland, eds.,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6, Eugene: Cascade Books, 2012)

Ji-Woon Yoo
(MyongJi University)

This collection of essays is edited by James A. Maxey and Ernst R. Wendland, both of whom are translation specialists with a particular experience of African oral performance culture. This book is also one of the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series, edited by David M. Rhoads, emeritus professor of the New Testament at 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 In this book, Vol. 6 of the series, co-editors provide their own articles alongside the other six contributors, many of whom have had a life experience of oral (performance) culture. First two articles written by Maxey and Rhoads play an important role in expanding the readers' understanding of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in relation to "Bible translation." The other six essays seem to function as case-studies that apply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to a specific Bible text or emphasize a fresh aspect of "Bible translation" based on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This book review mainly points out fresh insights of "Bible translation" that this collection of essays provide. First, "Bible translation" does not seek only one "right" and "objective" meaning. Rather it seeks multivalent and legitimate meanings, considering various "responses" from the audience, not just so-called "the intended meaning" by the author. Second, this book intensifies our understanding that translation itself is an interpretation. "Bible translation" does not mean mechanical transliteration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language. The article contributors in this book recognize that the oral performances of the Bible as "Bible translation" can have artistic value. Third, there are two types of "Bible translation" as oral performance. One is a translation of the ancient performances of the Bible and the other is a translation for the contemporary oral performances of the Bible. Although both translations are important as they are, it seems more significant how they can be related to

each other and how the contemporary performances can make rhetorical impact effectively on the audience. Fourth, the notion that oral performance of the Bible can be called a “Bible translation” belongs to Rhoads’ “engagement model” of Bible translation. Although almost all existing “translations” tend to center on a written translation document whatever the versions are, Rhoads’ “engagement model” of Bible translation regards oral performances as central, not a written document. Fifth, oral performances as “Bible translation” contribute to forming a particular identity of the hearing community. In this way, a fresh goal of Bible translation, i. e. “Christian identity formation” can be established.